2024년 09월 11일 37주간 제24-37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35과 교회의 특권(교회란 무엇인가)

성경말씀 에베소서 4장 11~16절(신약 p.313)

암송구절 에베소서 4장 12절(신약 p.313)

찬 송 찬송가 210(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9(통27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본 문 이 해

에베소서 4장은 성령님께서 신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으며 믿음과 세례도 하나입니다(엡 4:3~5).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신자들의 대표적인 기관은 교회이며,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됨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한 주이시며 모든 신자는 머리 안에 밀접하게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 따라 직분 자로 세움을 받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신자가 직분을 통해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와 '장성한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14절

-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요동하는 교회이며 장성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보충설명

사람의 몸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듯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그것이 사탄의 방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매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3. 교회는 어떤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 사랑의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보충설명

교회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일을 하여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사랑은 교회가 자라나는 데 영양분이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 이야기

루마니아 출신의 한 조각가가 조각한 '입맞춤'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의 조각으로, 서로가 합쳐져 하나의 돌이 되는 것이 목표인 양 꼭 붙어 있습니다. 반쪽씩만 보이는 둘의 눈은 하나가 되어 외눈박이가 되었고, 한 쪽씩만 보이는 팔은 한 사람이 스스로를 안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하나가 되어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굳어버렸습니다. 비록 기괴한 모습이지만 이 조각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멀쩡한 조각상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기도

-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적용

- 교회의 성장을 위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합시다.